

전주시 드론축구 성장시키는 방법은?

전북대서 전문가 200여명, 활성화 위한 포럼 진행 “유통·가격 한계 극복해야...” 주장 등 열띤 논의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가 세계인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통과 가격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항 허바스코리아 대표는 12일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드론축구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포럼은 최근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드론축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드론축구 해외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재항 대표는 “드론축구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왜 드론 축구를 해야 하나’, ‘왜 전주에서 드론 축구를 해야 하나’, ‘왜 사람들이 드론 축구를 해야 하나’라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축구를 세계인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드론축구 규칙과 장비, 도구를 정비하고, 경기장과 야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장애요소를 포착해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와 전북대 링크사업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분야의 전문가인

엄기석 필드테크 대표가 ‘드론축구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맡았다.

엄 대표는 “최근 스포츠와 문화예술, 교육, 마케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접목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드론축구 또한 이에 주목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상훈 한국 스포츠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범수 캠퍼스종합기술원 기술사업화팀장이 각각 ‘드론 레저스포츠산업 육성방안’과 ‘드론축구 경기규정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드론축구를 레저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드론축구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확고히 하고, 드론축구공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드론축구 포럼에 이어 드

론축구 저변확대 및 세계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유소년용 드론축구공과 경기장을 제작·보급하고, 방과 후 학습과 연계한 교육용 드론축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규 시장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동시에, 드론축구 세계대회를 개최해 중국과 일본, 유럽, 남미 등으로 드론축구 열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레저스포츠산업으로서 토대가 마련된 드론축구가 글로벌 시장 공략과 산업화를 통한 먹거리 창출이라는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전문가들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추진 등 인프라 구축과 드론축구의 세계화를 통한 레저스포츠 산업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전주시의 확고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이 12일 전주시, 덕진중학교, 만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사인 골드클래스, 제일건설, 중흥토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성개발지구 입주할 초·중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성지구 초·중생 등하교 돕는다

전주교육지원청·아파트시행사 등 통학 차량 지원 협약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12일 전주시, 덕진중학교, 만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사인 골드클래스(주), 제일건설(주), 중흥토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성개발지구 입주할 초·중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만성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시기(2018년 2월)와 초등학교(2019년 3월) 및 중학교(2020년 3월) 개교시기 불일치로, 유입 학생들을

개교 전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전주시 효자동 소재 홍산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4학군내 중학교 등으로 배정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만성개발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사는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중학교는 전주덕진중학교에서 만

성개발지구에 유입되는 중학생 전체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 전담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전주시는 만성개발지구 인근 중학교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통학시간대 노선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사업사들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가 개교할 때까지(초등학교 2018학년도, 중학교 2018~2019학년도) 통학차량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2018년도 입주예정 시행사들이 참여했고, 2019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 개발사업사는 향후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응시원수 접수

18일까지 인터넷으로만 가능 공개시험·학교장추천 병행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임용 1차 시험합격자 '147명'

전라북도교육청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을 ‘공개시험’과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http://jbe.go.kr>)를 통해 최근 공표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은 공개시험제도와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어·영어·수학·체육·중등(특수)·초등(특수) 등 6과목을 공개전형 시험으로 치르고, 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보건·전통상담·초등교육은 학교장(기관장) 평가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한 뒤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재한다.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제외대상으로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또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 임용시험 1차 및 전북 사립학교연합회 주관 임용시험 1차(공립 위탁 포함) 시험 이상 합격자를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재할 수 있게 해 학교(기관)에서 우수한 기간제교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응시원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시험(전공)은 내년 1월27일(토)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합격자는 2월1일(목) 오후 2시 발표한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는 2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도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코너에 본인이 직접 등재해야 한다.

/이상민 기자

도교육청, 탐험가 문경수씨 초청 특강

14일 오후 7시 2층 강당서

전라북도교육청이 14일 저녁 7시 전북 교육 아카데미 강사로 탐험가 문경수 씨를 초청한다.

탐험가 문경수 씨는 국내1호 과학 탐험가로, 월간 과학동아 기자,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핀플레이콘텐츠 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문경수 씨는 특강에서 몽골 고비사막, 알래스카 북극권, 서호주 탐험, 하와이 빅아일랜드 탐험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와 잃어버린 호기심에 대해 청중과 호흡할 예정이다.

저서로는 '35억년 전 세상 그대로', '외계생명체 탐사기'가 있다. 전북교육 아카데미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있다.

/이상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고, 따뜻한 교육은 희망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